



전자정부,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목표


언제 · 어디서나 민원 행정 처리 가능

취재 및 정리 백승오

특집 1부 'e-KOREA VISION 2006'

특집 2부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특집 3부 지방행정정보화 : 전자적 서비스의 발전과 전자정부구현 노력



Made in Korea

세계 각국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자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짜오고 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그림이 아니다. 전자정부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래정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리정부는 앞선 기술력과 인력, 전자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인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전자 정부를 꿈꾸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본지 발행처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전자정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자정부에 이어 모바일전자정부 계획안까지 소개되어 정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계획은 국가정보화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정부의 핵심은 기존 전자정부의 토대 위에 한층 향상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정부의 첫 단계로서 정부는 우선 휴대폰을 이용한 기초 민원서비스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는 모바일을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과 승차권발급 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향후 5년간 총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m정부 구축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이 단계에서는 'm정부' 추진을 위한 기초환경 조성 및 시범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단계이다.

1단계가 'm정부'를 위한 토대구축 단계라면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m정부' 구축을 위한 2단계 기간으로 이동청사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3단계인 2004년 이후에는 행정개혁 완성과 더불어 m정부 기반 및 서비스 기술 수출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m정부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오는 2006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체계가 구축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행정지연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산업경쟁력이 높아진다.

행정에 있어서 완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전자정부가 완성이 된다면 투명 행정의 실현과 국민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완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한발한발 전자정부를 추진해 가고 있다.

다음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를 정리했다.

- ① 전자정부컨퍼런스 기초연설 KDPC 이준우 전무이사
- ② 환영인사 오세훈 국회의원
- ③ 컨퍼런스 전경
- ④ 컨퍼런스 전시관

